

서로의 배려를 통한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Building a Beautiful City through Mutual Care

요즘 먹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주변을 둘러보면 오로지 생존 그 자체에 매달려 있는 것만 같다. 경제위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적자생존을 위한 동물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우리를 서글프게 한다. '우리'는 어디가고 '나'와 '너'만 있다. 공동체 의식보다는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언제부터 생긴 것인지 잘 모르겠다. 정치권 탓인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인가? 경쟁사회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가? 대가족제도의 붕괴, 핵가족화의 영향일지도 모른다. 음식점 등 공공장소에서 떠드는 아이에게 주의를 한번 줘 보라. 아마 황당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의범칙은 우리에게서 사라진지 이미 오래다.

도시경관도 사람의 세계와 별반 다르지 않다. 각자 잘났다고 야단들이다.

건축물은 어떤가? 눈에 거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왜 혼자 독불장군처럼 저렇게 서 있어야 하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무조건 크고 넓게, 주변의 형편과 관계없이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규모를 다 찾아 건축하고 있다. 건축도 경제활동의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건축주의 의사에 반한 설계가 불가능한 현실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전문가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늘날의 도시풍경을 살펴보자. 건축가의 손을 거치지 않은 건축물이 어디 있는가? 그 모습을 보고 건축주나 법과 규정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왜 전문가가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다.

이러한 현상은 건축물이 도시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도시를 '우리' 라고 한다면 건축물은 '나' 아니면 '너'이다.

건축물과 건축물이 어울려 도시풍경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한다면 '나'와 '너'는 서로간의 양보와 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럴 때에야 도시는 도시다워지는 것이다.

도시계획분야 사람들은 건축사를 욕한다. 도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그래서 용적률과 건폐율, 심지어는 높이기준(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별 높이제한 기준을 따로 규정하고 있음)까지도 도시계획분야로 이관시켰다. 지구단위계획도 도시계획분야 사람들의 전유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건축을 전공한 한 사람으로서 매우 서글프다.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의 힘(외부의 힘일 수도 있고, 내부의 반작용일 수도 있음)에 의해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간판은 어떤가? 간판은 오로지 간판만 생각한다. 간판의 생명은 광고다. 주변보다 튀어야 한다는 생각뿐이다. 무조건 커야하고, 무조건 현란해야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다보면 건축물의 외관은 아예 무관심이다. 훌륭한 건축사가 디자인한 건축이든 아니든 문제 삼지 않는다. 오로지 간판만 걸 수 있다면 된다는 식이다. 이것이 오늘날의 간판문화이다.

노유패션거리를 조성하면서 왜 입간판을 경쟁적으로 세우는지 물어보았다. 옆집에서 하니 안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손님을 빼앗기는 기분이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크고 현란하게 입간판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래서 해당지역의 주민들로 하여금 협정을 맺도록 했고, 지금까지 이를 잘 지키고 있다. 거리가 깨끗해지고, 손님이 늘어서 장사가 잘 된다고 한다. 이게 바로 윈윈전략이고 상생의 길이다.

오늘날 간판은 과연 제 구실을 다하고 있는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무질서한 간판은 도시미관을 저해할뿐더러 인지성도 떨어져 광고효과를 낼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현상에 대해 간판제작자들은 점포주나 법과 제도를 탓한다. 점포주의 요구를 제작자가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렇다고 그들이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도시를 둘러보자. 그들의 손을 거치지 않고 제작된 간판이 어디 있는가를.

간판은 건축물을 배려해야한다.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간판이 건축물의 주인이 될 수는 없지 않은가. 겸손한 간판을 통해서 도시미관을 되찾아야 한다. 도가 지나치면 시민들로부터 몰매를 맞을 수도 있다. 결국 외부의 힘을 빌어 정화시킬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스트리트 퍼니처(street furniture)도 마찬가지다. 안내판은 안내판대로, 가로등은 가로등대로, 보도포장은 보도포장대로 각각 제 잘난 모습이다. 어떻게 하면 눈에 더 잘 띄게 할 것인지 경쟁을 한다. 파란색의 가로수분 덮개, 녹색의 광고물부착 방지용 싸개, 푸른색의 전화박스, 형형색색의 보도포장 등을 보면서 전체 가로에 대한 배려는 전혀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너무 유치하고 몰개성적이다. 그리고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비인간적인 모습이다.

품격 높은 가로경관은 이들 가로시설물의 경쟁에서 얻기보다는 건축물과 간판, 가로수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 좋다. 여기다 잘된 안내 사인 시스템이 있다면 금상첨화다. 나머지 스트리트 퍼니처는 있는 듯 없는 듯하며 가로에 숨어 있는 것이 좋다.

관련법령이 다르고 설치부서가 달라서 어쩔 수 없다는 변명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누군가가 이를 꺾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법령을 통폐합해서라도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도시풍경은 위에서 열거한 것들의 조합과 그 속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러기 때문에 좋은 도시경관이나 나쁜 도시경관의 결과는 각각의 책임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남을 탓해서는 안 된다. 각자의 분량대로 그 책임을 공동으로 나누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전문가가 소비자(또는 의뢰자)나 법과 제도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세세한 기준으로 규제할 수 없어서 규제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규제가 만능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것 아닌가? 건축가(건축사), 간판디자이너와 제작자, 조경 및 도로 전문가, 도시계획가, 교수 등 전문가는 제 할일을 다해야 한다.

좋은 도시, 아름다운 도시, 편한 도시를 만들고자 함은 이 도시의 주인인 '나'와 '너'만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자의 몫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배려는 양보하는 마음이다. 양보는 조화요 상생이다. 건축물이 도시에 대한 양보를, 간판은 건축물에 대한 배려를, 스트리트 퍼니처는 가로에 대해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